

사회화 과정으로 본 기간병 유머의 양가성

정재민

1. 사회화 과정과 기간병 유머의 범주
2. 자아존중과 자기비하 : 정체성의 혼돈과 그 흔적
3. 경험의 각인화와 인상화 : 군생활의 편린과 일상성의 회복
4. 새로운 바보형 인물 : 고문관 혹은 군대유머 속의 바보
5. 방위병 소재 유머의 내면 : 또 다른 주변인의 회화화
6. 사회화 과정으로 본 기간병 유머의 양가성

1. 사회화 과정과 기간병 유머의 범주

일반적으로 사회화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¹⁾ 이런 사회화 과정을 거쳐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과 행위규범을 습득하게 되고, 지위에 따른 역할을 배우게 되며,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화는 흔히 원초적 사회화 과정과 2차적 사회화 과정으로 구분한다. 원초적 사회화(primary socialization)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걸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2차적 사회화(secondary socialization)는 아동기 이후 학교를 포함한 제도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사회화 단계를 거침으로써 각각의 개성을 형성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추게 되며, 또한 인식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화는 한번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특히, 학교·직장·군대와 같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갈

1) 김선웅, 『개념중심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6, 93면 ; 앤드류 애드거·피터 세즈워, 박명진 외역, 『문화이론사전』, 한나래, 2003, 225면.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재사회화(re-socialization)가 일어난다. 새로운 학교나 조직 혹은 군대는 이전과는 다른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신입자에게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이 중에서 군대는 한층 더 상이한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군복무 기간을 하나의 사회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군대사회화라고 부르기도 한다.²⁾ 즉 신병교육 기간을 거쳐 민간사회에서 성장한 청년을 군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은 강제적 방식에 의한 재사회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군대사회화 과정은 결과론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군생활을 경험하는 병사들은 인식적 정서적 측면에서 보다 다단한 굴곡을 겪어내고 있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병사들의 인식적 편차는 사실적인 체험담을 통해서 혹은 허구적으로 형상화된 문학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군대유머는 사실과 허구가 어우러진 현대 구비전승물의 한 가지 형태로서 한국인의 문화와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³⁾ 따라서 군생활을 사회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군대유머에 나타난 병사의 의식세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본고는 군대유머 중에서 기간병 유머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화 과정의 다각적인 국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간병 유머는 대체로 신병기간을 벗어난 시기부터 시작하여 제대병 취급을 받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포함한다.⁴⁾ 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교육훈련·내무생활·작업·면회·휴가 등등 군생활의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간병 유머는 군생활의 다양한 체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

2) 백종천, 『국가방위론』, 박영사, 1985, 569면 ;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1994, 273~274면.

3) 줄고, 「군대유머의 사회문화적 위치」, 김규철 외, 『어문학연구의 넓이와 깊이』, 역락, 2006, 705~730면 ; 줄고, 「신병유머의 면모와 의식세계」, 『웃음문화』 창간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6, 117~146면.

4) 基幹이란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런 의미를 토대로 하여 만든 기간병이라는 말은 군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병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基幹兵은 어느 정도 군생활에 적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된 병사라고 할 수 있다.

에서 군대유머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만하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병사와 방위병을 중심적 소재로 하는 유머에 국한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자아존중과 자기비하 : 정체성의 혼돈과 그 흔적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고 한다.⁵⁾ 특수한 형태의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는 군대사회화 과정을 거친 병사들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결과에 다다른 과정에는 정체성의 혼돈을 거듭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경험들은 병사를 소재로 하는 유머에 여실하게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먼저, 입대한 병사들이 겪는 정체성 혼돈을 다룬 예화를 보기로 한다.

논산훈련소에서 고생하고 있던 훈련병 시절, 제일 많이 했던 일은 훈련이 아니라 제조작업이었다. 그날도 넓은 평지에 있는 잡초를 다 뽑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불평불만을 하며 풀을 뽑고 있던 중 어떤 녀석이,

“제조제 사다 뿌리면 다 없어질 텐데, 왜 우리한테 시키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재수 없게 교관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모두들 바짝 긴장했다. 그리고 교관의 다음 말을 듣고 모두들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너희들이 제조제보다 싸잖아.”⁶⁾

훈련병 시절 논산훈련소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했다고 했다. 훈련병들은 ‘훈련’이 아닌 ‘작업’에 임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입대하기 전의 예상과는 달리 훈련보다 작업의 비중이 너무 높았던 것이다. 군인은 훈련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훈련병들은 불평을 털어 놓는다. 그런데 우연히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5) 김선웅, 앞의 책, 101면.

6) <제조제보다 싸잖아>, 폭소닷컴(게시자 : 원조폭소, 2004. 4. 27.) ; <제조제와 훈련병>, 문화일보(2006. 9. 7.)

교관이 훈련병이 ‘제초제’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순간 훈련병들이 한동안 충격에 휩싸인 이유는 불합리성의 경험 때문이다. 병사들은 제초제를 뿌리면 해결되는 일을 인력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군대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에서 필요한 시설은 외부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훈련과 생활에 소요되는 물품은 외부에서 조달한다. 그러나 건물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일은 해당 부대에 맡겨진다. 외부에서 조달된 물품의 관리 역시 해당 부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내무반이나 체육관을 짓는 일은 외부업체에서 시공하지만, 준공 이후 이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일은 군에서 해야 한다. 지급된 총기의 관리, 의류의 세탁과 수선, 식료품의 조리과 취식 역시 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이처럼 군대는 훈련기관이면서 동시에 생활공동체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병사들은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훈련병들이 잡초 제거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군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훈련소 내의 잔디밭도 훈련소를 구성하는 자연환경의 한가지이며, 이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도 군대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자기 집 주변의 잡초를 뽑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자기 집 정원의 잔디밭을 가꾸는 것과 같은 일이다. 다만 그것을 인력으로 하는가, 제초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병사들은 아직 군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납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징집된 군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징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병사들은 시간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의 징집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노동력의 징집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노동력은 시간적 신체적 요소와 불가분의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한 징집의 범주에 포함된다.⁷⁾ 여기에서 서로 대립되는 인식의 충돌을 찾을 수

7)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여성과 사회』 1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0, 96~97면.

있다. 그것은 바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된 존재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존중받고 싶어 하는 병사들의 내면적 인식 충돌이라고 할 것이다.

어느 날 김병장이 분대원을 소집했다.

김 병장 : 야, 여기 피아노 전공한 놈 있어?

박 이병 : 네, 접니다.

김 병장 : 그래. 너 어느 대학 나왔는데?

박 이병 : K대 나왔습니다.

김 병장 : 그것도 대학이나? 다른 놈 없어?

조 이병 : 저는 Y대에서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김 병장 : Y대? S대 없어? S대?

전 이병 : 제가 S대입니다.

김 병장 : 그래. 여기 피아노 좀 저기로 옮겨 봐라.⁸⁾

고참병이 소대원 중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병사를 찾았다고 했다. 여러 명의 일류대학 전공자가 손을 들었지만, 고참병은 이들을 모두 무시하고 유독 S대학 전공자를 찾는다. 그래서 S대학의 피아노 전공자가 손을 들었더니 고작 피아노를 옮기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이 유머는 미술 전공자, 검도 유단자로 내용을 변이시켜 삽화식 연작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전공과 연관이 있으나 전혀 엉뚱한 작업지시를 내리고 있어 웃음을 유발한다. 가능하면 일류대학생, 고단자를 선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지만, 결말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격하게 전환된다.

이들 삽화에서의 갈등은 병사의 기대와 군내 활용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병사를 선발할 때에는 최상의 조건을 고려하지만, 그들을 활용할 때에는 그러한 조건과의 상관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조화는 하급자와 상급자의 인식의 불일치에서 유래한다. 하급자는 각자 특별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인격체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⁹⁾ 그러나

8) <군대의 인재들>, 문화일보(2004. 10. 23.)

상급자는 그러한 재능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군대에서는 일반 사회와는 상이한 기준과 위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하급자는 사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면, 상급자는 군대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급자는 처음에는 하급자와 동일하게 사회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유머의 근저에는 다분히 병사의 기대수준과 군대의 활용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병사들의 기대수준이 사회적 관점에서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면, 활용수준은 군대의 관점에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인정 욕구는 곧 自我尊重感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와 군의 인정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군 조직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사들이 대면해야 하는 군과 민의 차이는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존의식의 손상은 자기비하 의식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머에서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존중감과, 현실에 바탕을 둔 자기비하 의식의 병립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군대유머 속에 나타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비하 의식은 대립적으로 공존한다. 다음 자료에서도 상반된 두 인식의 병존을 볼 수 있다.

그대 봄에 소풍 갈 때 따가운 햇살 받으며 잡초를 뽑는 이 있고,
 그대 여름에 피서 갈 때 매일 무너지는 제방 다시 쌓는 이 있고,
 그대 가을에 낙엽 갈무리 할 때 길가에 부스럼 없이 낙엽을 치우는 이 있고,
 그대 겨울에 스키장 갈 때 날밤을 새며 눈을 치우는 이들이 그곳에 있다.
 그대 초코파이 먹기 싫다 버릴 적에 하나 가지고 나눠 먹으며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란 정을 느끼고 자기의 피와 바꾸며 먹는 곳...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많은 곳...
 사회에 나와서 인정 안 해준다 하지만, 난 그곳에서 정을 느꼈고 인생의 쓰

9) 인간은 자아와 관련하여 자기지식 욕구, 자기고양 욕구, 자기향상 욕구라는 세 가지 동기를 갖는다고 한다.(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개정판, 학지사, 2002, 78면.)

라림을 배웠고 사람을 얻었습니다.¹⁰⁾

그대라고 일컬어지는 민간인의 생활에 비추어 군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머이다. 화자에게 있어서 군생활은 봄에는 잡초를 뽑고, 여름에는 제방을 쌓으며,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이들 활동은 모두 ‘작업’이라는 코드로 수렴되며, 군생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달픈 삶의 과정임을 뜻한다. 그러나 군생활에 대한 결론적인 인식은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많은 것’으로 귀착된다.¹¹⁾ 군생활의 고달픈 그 자체가 새로운 성장의 과정이자, 초코파이 하나를 나누어 먹을 줄 아는 전우애를 체험하는 기회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¹²⁾ 이 단계에 이르면 작업은 슬픔의 코드이자 기쁨의 코드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머들은 입대한 병사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적 혼돈과 그 혼저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불안정한 성인이자, 미숙한 군인으로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카오스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군대유머의 한 축에는 입대 이후 겪게 되는 재사회화 과정에서 인격체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이의 좌절에서 오는 자기비하감과 같은 상충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3. 경험의 각인화와 인상화 : 군생활의 편린과 일상의 회복

병사 소재 유머는 군생활의 다양한 면면들을 사실적으로 혹은 허구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군생활에 관한 일종의 신변잡기 내지 일화라고 할 수 있으며, 형형색색의 편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편린들을 통하여 군생

10) <그대와 나>의 뒷부분, 폭소닷컴(www.pokso.com, 게시자: 왕폭, 2004. 6. 6.)

11) 실제로 이는 군복무의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군복무를 통해 얻는 것이 많은지, 잃는 것이 많은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얻는 것이 많다는 답변이 39%, 잃는 것이 많다는 답변이 32%, 반반이라는 의견이 29%라고 한다. 이를 보면 군생활은 이익과 불이익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안상수, 「군가산점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페미니즘연구』 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336~339면.)

12) 윤진 김도한, 「군복무 경험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95년차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심리학회, 186면.

활 전반에 걸친 특별한 경험들은 오랫동안 기억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반추된다. 그런데 이처럼 훗날까지 추억되는 군복무 경험은 훈련이나 내무생활의 일탈된 경험이 대부분이다.

(숲속에서 똥을 누는) 광경을 누구에게 들리기 전에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누군가에게 들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기인열전’에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재빨리 엉덩이 쪽으로 휴지를 가져가는 순간, 뒤쪽 수풀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며 누군가가 내려왔다. ‘산토끼’ 정도이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신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렇게 어색한 상황에 등장한 인물은 옆 중대 중대장이었다. 그 중대장은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곤란해 뉘칠 것 같았다. 문득, 그 중대장은 ‘상급자에 대한 경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간부라는 것이 생각났다. 병신처럼 휴지를 든 오른손으로 경례를 할 뻔 했다. 내가 그렇게 덩 자세와 경례 자세 사이에서 어정쩡하고 있자, 그 중대장이 ‘편히 쉬어’를 말하는 말투로 얘기했다.

“아냐, 아냐! 계속 해! 계속 싸!”

그리고는 의미 있는 웃음을 짓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난 별경계 달아오르는 얼굴을 왼손으로 감싸며 다시 휴지를 엉덩이로 가져다댔다.

그 때 또 한 번의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제발 산짐승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신은 죽었다.(이하 줄임)¹³⁾

어떤 병사가 겨울에 실시되는 야외훈련 중 야지에서 대변을 보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이다. 야외훈련 시에는 대소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산간지역에서 훈련을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문제는 한참 대변을 보는 중에 지나가던 인접 중대장과 대면하면서 발생한다. 더욱이 중대장 뒤에는 124명의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었

13) <군인의 고백>, 김하사닷컴(www.kimhasa.com), 게시자: 김하사, 2005. 9. 14.)

으니 사태는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돌입한다. 그러한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두고, 화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대장 한 명에게 노출된 것도 부끄러운데, 줄줄이 행군하는 중대원 전체에게 그런 장면을 들켰던 것이다. 이렇게 주인공은 백여 명의 동료들에게 부끄러운 장면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화자는 이야기를 “훈련 복귀 후 강원도 철원에서 호랑이 똥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았다. 뉴스에서는 굶기로 보나, 양으로 보나 호랑이의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난 아직도 방송사에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¹⁴⁾라고 끝맺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언술을 보면 그때의 사건은 부끄러운 추억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오히려 화자는 이 사건을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자신의 뇌리에 각인된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¹⁵⁾ 이렇게 각인화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경험의 비정상성 때문이다. 대소변 상황은 이따금 이유로도 공개될 수 없는, 그것 자체로 완전하게 사적인 일상이다. 그러나 일반사회와 달리 군생활 중에는 이런 사적 일상도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특별한 경험으로 각인화 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군경험은 비정상과 정상,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이 나누어지기 어려운 애매모호성을 띤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계를 벗어난 일탈적 사건은 각인화의 대상으로 선별되기 십상이다.

내가 바지를 내리는 순간
당직사관과 모든 병사들의 시선은 나에게로 집중
되었고

당직사관과 병사들 : (쇼킹한 표정으로) 허거걱!

당직사관 : 야 임마, 빨랑 바지 올려 보기 민망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팬티를 안 입고 있어?

나 : (고개를 숙인 채) 오늘 갖고 있던 팬티를 모두 빨아서…….

14) <군인의 고백>의 끝부분.

15) 노인들의 생애 구술을 보면 연대기적 기억보다 사건 중심의 경험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사건 중심의 기억은 ‘각인된 경험’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무수히 많은 경험 중에서 선택된 기억은 각인된 경험이라고 한다. (박경숙, 「생애 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4, 112면 및 127면.)

당직사관 : (웃긴다는 표정으로) 하하! 아무리 그래도 입을 팬티는 남겨두고 빨아야지! 나는 무슨 변태가 한 놈 있는 줄 알았다. 새 팬티 있는 병사 있으면 지금 막내한테 하나 던져줘라. 저 꼴로 잠자라고 할 수는 없잖나?

결국 나의 노팬티 사건으로 살벌했던 분위기는 어쨌거나 밝아졌고, 모든 병사들은 무사히 잠들 수 있었으며 나는 새 팬티 하나를 얻을 수 있었지만.....¹⁶⁾

저녁 점호 시간에 벌어진 이른바 노팬티 사건을 다룬 것이다. 취사병으로 근무하는 이등병이 오랜만에 빨래를 하게 된다. 빠듯한 일과와 낮은 계급 때문에 평소 빨래를 하지 못했던 그는 기왕 빨래를 시작한 김에 입고 있던 팬티까지 세탁을 하고, 그 결과 노팬티 상태로 점호를 맞이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 당직사관이 불의의 위생검사를 하면서부터 발생한다. 결국 화자의 노팬티 상태가 드러나고, 그렇게 된 연유 또한 밝혀지며, 살벌했던 점호 분위기는 오히려 화기애애하게 역전된다.

이 역시 일탈적 행위에 따른 각인화 내지 인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머에서는 다중적인 각인화가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등병이 입고 있던 속옷까지 빨았다는 것, 팬티를 입지 않고 점호를 했다는 것은 일차적인 각인요소이다. 당직사관이 취사병의 엉뚱한 행위를 감싸주었다는 것, 고참들이 새 팬티를 주었다는 것, 험악했던 내무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는 것은 이차적인 각인요소이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 행위의 궤도를 벗어난 일탈적 행위이다. 또한 취사병 개인과 나머지 병사들 그리고 당직사관과의 관계를 통해, 점차 확장되는 기억될만한 경험으로 반전을 보여준다. 그러한 반전의 기저에는 병사들이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집단적 정체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때의 정체성은 개인정체성이 아닌 사회정체성¹⁷⁾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동료 또는 전우로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과 멤버십의 확인은 군

16) <취사병 내무반을 위기에서 구하다>

17) 개인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개성을 지닌 독특한 인물로서 인식하는 것이라면, 사회정체성은 자기가 속한 여러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지각하는 것이다.(장미향·성한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07, 79면.)

대사회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전환적 국면이야말로 군대유머의 주요한 소재이자 웃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허구적 성격이 강한 예화를 하나 보기로 한다.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은 저녁으로 돈까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 있었죠.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엇인가 하고 보니 돈까스를 1인당 2개씩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싸! 봉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 소스는 없다고 하더군요. 부식병이 보급 받을 때 돈까스 한 박스와 소스 한 박스를 가져온다는 것이 실수로 돈까스 두 박스를 가져온 것이지요. 약간 속이 울렁거림을 느끼면서 우리들은 불평을 해댔죠.

“소스도 없이 돈까스를 두 개나 먹으란 말이냐? 궁시렁 궁시렁...”

그때 한 고참병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야. 우리들은 불평할 필요가 없다. 애들아,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에서는 소스만 두 개 먹고 있는 애들도 있을 끼다.”¹⁸⁾

어느 날 저녁 반찬으로 돈까스를 두 개씩 준다고 해서 좋아했다는 것이다. 돈까스가 두 개씩이나 배급되게 된 까닭은 부식병이 소스 대신에 돈까스 박스만 가져오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소스도 없이 돈까스를 두 개나 먹어야 한다는 상황은 제법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의 불평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병사들의 생각은 정상적이며, 일상적 범주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고참병이 나서더니, 불평하기에 앞서 소스만 먹고 있을 어느 부대의 병사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 부대에서 돈까스를 더 많이 가져왔다면, 분명히 소스만 가져간 부대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발언이다. 돈까스만 먹어야 하는 우리 부대나, 반대로 소스만 먹어야 하는 다른 부대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다면, 소스만 먹어야 하는 것보다 돈까스만 먹어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

18) <군대에서 먹은 돈까스 반찬>, 폭소닷컴(www.pokso.com, 게시자: 왕폭, 2003. 12. 27.)

이다.

이러한 고참병의 생각은 처해진 상황과, 그 상황에서 연유될 수 있는 문제를 하향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비록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를 다른 부대와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발상은 군 생활을 전제로 한 인식이며, 비일상적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4. 새로운 바보형 인물 : 고문관 혹은 군대 유머 속의 바보

고문관 이야기는 신병 유머를 비롯하여 기간병 유머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 고문관이란 어리숙하거나 명칭하고 바보스러운 행위를 일삼는 인물을 지칭하는 군대속어이다.¹⁹⁾ 전통적인 바보설화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우행을 일삼는 주인공을 소재로 한 이야기로서 일반적으로 치우담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때의 우행은 실수나 무분별 또는 망각 등을 두루 포함한다. 고문관 유머 역시 전통적인 바보 이야기의 범주와 대체로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 유머는 전통적인 바보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이다.

최불암이 6.25 때 백마고지에서 이등병으로 있을 때, 소대장의 단골 교양 메뉴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다. 어느 날 적군의 수류탄이 최불암 소대로 날아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최불암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모어!”²⁰⁾

최불암이 6.25 때 백마고지 전투에 임하고 있었는데, 소대장은 항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어느 날 적의 수류탄이 날아오자 최불암은 소대원들에게 모이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쳤다는 것이다.

19) 고문관이라는 속어가 생겨나게 된 유래는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미군 고문관이 라고 한다. 그때 당시 국군의 창설과 관련된 조언과 고문을 해주기 위해서 미군 고문관이 파견되었는데,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남의 말을 엉뚱하게 알아듣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빗대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20) <이등병 최불암> (서정범, 『너털별곡』, 한나라, 1994, 34~35쪽에서는 YS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최불암은 소대장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소리치는 바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최불암의 우행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문면적인 의미만을 취한 결과이다. 소대장이 몽쳐야 산다는 것은 서로 단결하여 합심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불암은 수류탄이 떨어졌다는 전후사정을 무시하고, 소대장의 말을 기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소대장의 말에 충신했다고 하겠으나, 이면적으로 그와 정반대의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은 한마디로 지적 수준이 낮고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저능인이다. 그는 군대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바보이며, 그의 행위는 전형적인 우행일 뿐이다.

그러나 군대유머 속의 고문관은 한층 확장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이 군대엘 갔대요. 근데 아침에 왜 피티체조가? 티피체조가? 아무튼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딱 30개를 하는 거였대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 왜 스물아홉까지 말하고 서른은 말 안하기. 말하면 다시 침부터, 다 아시죠? 근데 꼭 한 놈이 계속 “서른! 서른!” 이러는 거예요. 피티체조 시키는 사람도 열이 받아서, “그럼, 둥글게 둥글게 노래에 맞춰서 티피 체조를 한다! 실시!”

그러면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계속 ‘서른’ 하던 그 사람이,

“딩가 덩가 덩가 덩가 덩가”²¹⁾

피티체조는 체력단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체조로서, 유격훈련이나 공수훈련 등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훈련을 할 때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피티체조를 할 때에는 정신집중과 단결심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 횟수를 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규칙 중의 하나이다. 만약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속 두 배씩 횟수를 늘려 체조를 반복하게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

21) <피티체조>, 폭소닷컴(www.pokso.com, 게시자: 왕폭, 2004. 8. 26.)

칙을 가진 피티체조를 실시하는데, 꼭 한 명이 마지막 횃수를 복창하여 문체를 일으켰다고 했다. 즉, 스물아홉까지만 번호를 외쳐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마지막 번호인 서른을 계속 외쳤다는 것이다. 이에 교관이 <등글게 등글게>라는 노래에 맞추어 피티체조를 하되, 후렴은 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혼자서 후렴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수를 거듭함으로써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속칭 고문관이라고 한다. 고문관이라는 별명은 자의에 의하여 얻을 수도 있으나, 타의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낯설은 환경에서의 실수는 사람을 당황시키고, 이는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중국에는 고문관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다. 사오정 시리즈의 주인공 역시 이러한 고문관 유형에 속하는 인물이다.

사오정이 군대에 갔을 때 일이다. 사오정이 입대한 군대에 어느 날 우정의 무대 촬영팀이 왔다. 사회자는 일단, “이번 코너에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장기자랑을 보겠습니다. 장기자랑을 준비한 국군장병 여러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라고 외쳤다.

당연히 사오정은 그곳으로 올라갔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고 드디어 사오정의 차례. 사회자는 사오정에게 어떤 걸 준비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오정이 하는 말, “저희 어머니가 확—실(확실) 합니다!”

깜짝 놀란 사회자는 사오정에게, “이번 코너는 장기자랑 시간인데요!”

라고 했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 “어머니—”²²⁾

사오정이 군대에 갔을 때, 마침 ‘우정의 무대’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녹화가 있었다고 했다. 마침내 장기를 자랑하는 순서에 이르러 사오정도 출연하게 되었다. 사회자가 어떤 장기를 준비했느냐고 묻자, 사오정은 자기 어머니가 확실하다고 엉뚱하게 대답한다. 사오정은 장기자랑 코너를 어머니와의 만남 코너로 오해했던 것이다. 사회자가 장기자랑 코너라고 다시 한

22) <사오정과 우정의 무대>, 사오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바로 사오정이다』, 자작B&B, 1998, 129면.

변 일깨우지만, 사오정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어머니’를 외치고 있어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사오정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전형적인 고문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코너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회자의 물음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말해버리고 만다. 그는 세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로지 자신이 구축한 자신만의 세계 속에 머무를 뿐이다. 그가 바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소통을 회피하는 인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보통 이하 수준의 인물이 등장하여 비정상적 행위를 일삼는 전통적 바보 이야기와 다른 새로운 바보형 인물상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성격을 가진 고문관의 유형은 다양하다. 진짜 바보인 고문관도 있지만 급격한 생활변화에 따른 일시적 고문관도 있고, 부적응을 이용하는 의도적 고문관도 있다. 이런 다양한 고문관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인식의 편폭은 매우 넓은 것으로 보인다.²³⁾

그렇다면 고문관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단순한 시각은 군생활에 대한 부적응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병사들은 성격적, 지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서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군대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적응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달리 적응력이 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고문관 이야기로 만들어질 소지가 크다.

또 다른 시각은 입대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心理的 退行 현상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다. 군대는 일반사회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특수사회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고, 개별성보다는 통일성이 강조된다. 이런 조직문화는 자칫 병사들의 태도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체로서의 면모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 愚行이나 심리적 퇴행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고문관 이야기를 형

23) 실제로 군경협담을 엮은 책인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북로드, 2005.)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고문관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문관 이야기는 전통적 바보설화와 대비하여 연구될 만하다고 본다. 양자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전통적 설화와 현대적 설화를 연관지어 다룰 때 좋은 소재가 될 만하다. ; <라디오에서 부활했다! 네버엔딩 군대이야기>, 조선일보(2007. 7. 13.)

성하는 주요한 소재가 될 만하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烙印化 혹은 피해자 사회화(victim socialization)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다.²⁴⁾ 낙인화란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을 바보라고 낙인을 찍으면 점점 바보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피해자 사회화 현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 두 번의 실수를 저지르면, 이를 계기로 그는 집단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낙인자 혹은 피해자는 바로 고문관 이야기의 주요한 소재가 될 만하다.

5. 방위병 소재 유머의 내면 : 또 다른 주변인의 희화화

방위병 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되던 것으로서 1994년 말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로 대체되었다.²⁵⁾ 이들은 현역과 비교하여 그 복무형태만 다를 뿐,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병은 현역과는 대비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때로는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현역과는 다른 복무방식이나 임무, 사회적 비하의식은 수많은 방위병 이야기의 원천이 되고 있다.

방위병을 소재로 한 유머 중에서 우선 살펴볼 것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한·미 연합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그리고 방위가 참가했다. 실전 같은 훈련을 아주 성공리에 마치고 회포를 풀기 위해 미군들과 한국군이 함께 하는 자리가 주어졌다. 그런데 한국군

24)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개정판, 학지사, 2002, 69면

25) 방위소집제도의 시초는 1962년의 병역법 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방위소집제도를 창설한 목적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예비역과 보충역을 소집하여 향토방위를 하기 위한 데 있었다. 그러나 1968년 4월 향토예비군이 전국적으로 조직 편성되자 종래의 방위소집제도는 그 본래의 사명을 상실하게 되어 향토방위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평상시 예비군지역중대의 기간요원이나 병무관서 또는 치안관서의 기간요원으로 복무하는 것도 향토방위의 일부라고 보고, 이를 위해 1969년 4월 5일 최초로 발전된 형태의 방위소집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모여 있는 자리에 미군 한 명이 찾아왔다.

미군 : 아임 어메리칸 마린! 유얼즈? / 육군 : 아임 코리언 아미! / 해군 : 아임 코리언 네이비! / 공군 : 아임 코리언 에어포스! / 해병대 : 아임 코리언 베스트 마린!

그런데 마지막인 방위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머뭇머뭇 거렸다. 답답해한 미군은 계속 물었다. 몇 초가 흐른 뒤 방위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방위 : 아—임 코—리—언 아르바이트 솔저.²⁶⁾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마친 한·미 병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포를 풀었다고 했다. 이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사와 함께 방위병도 참가하였다. 미군 병사와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각각 자신을 영어로 소개하는데, 방위병은 한참 동안 머뭇거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방위병은 자신은 ‘아르바이트 솔저’라고 소개했다는 이야기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그에 대한 영어 명칭이 존재한다. 그러나 방위병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의 군인이다. 그러므로 영어에서는 애초부터 방위병을 부를 일반적 명칭이 없는 상황이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정체성 부재를 암시한다고 생각된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 인식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위병은 구조적으로 정체성 부재라는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그가 어렵게 생각해 낸 ‘아르바이트 솔저’(arbeit soldier)라는 말은 이런 인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래 아르바이트란 본업과는 별도로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하는 부업을 의미한다.²⁷⁾ 그런 점에서 아르바이트는 본질적으로 시간적,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아르바이트 솔저라는 말도 결국 부업적인 군인, 혹은 임시적인 군인이라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병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은 수많은 이름을 파생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不在意識을 강화시킨다. 해안부대에 근무한다는 갯방위 혹은 해변대, 동사무에서 행정적 사무를 담당한다는 동방위 혹은 동방불패, 우리 동네 특공

26) <방위의 직함>, 폭소닷컴(www.pokso.com)

27) 아르바이트는 본래 노동·업적을 뜻하는 독일어인 arbeit에서 온 말이다.

대의 이니셜인 UDT, 한국지역방위의 이니셜인 KGB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²⁸⁾ 이와 같이 방위병의 특별한 이름들은 근무지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다른 집단의 명칭을 패러디하여 회화화하고 있다. 이는 곧 그들의 정체성이 매우 약하거나 부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위병의 정체성 부재의식은 그들에 대한 회화적 태도를 심화시킨다. 특히, 현역병과는 상이한 방위병들의 근무방식과 군생활을 소재로 한 이야기에서 회화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떤 고위관리가 63빌딩을 지나고 있을 때, 빌딩 꼭대기를 보니 한 가닥 밧줄을 동여맨 동방위가 밑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뛰어들어 내리겠다.”

경찰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때 고위관리가 헬기를 타고 동방위에게 접근하여 “불만이 뭐가?” 라고 묻자 방위병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다. 고위관리가 사정을 다 듣고 한마디 하자 거짓말같이 방위병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 한마디 말은, “이젠 퇴근해.”²⁹⁾

어떤 방위병이 장관이 물러날 것을 주장하면서 63빌딩에서 밧줄에 매달려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경찰이 아무리 설득해도 방위병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주장을 굽히지 않던 방위병이 거짓말처럼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시위를 중단시킨 말은 바로 ‘퇴근해’라는 한 마디였다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써 그의 행위는 완전히 무의미해진다. 그의 존재 까지도 순간 사라진다. 이를 보면 방위병은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만 존재하는, 출퇴근시간이 존재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시간적 존재이다. 이렇게 방위병은 시간적 경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또 다른 주변인적 성격이, 현역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출퇴근 이외에도 방위병과 현역병의 차이는 다양한 편이다. 방위병의 임무와 도시락 등등 그들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나열한 유머도 활발

28) <방위 이야기>, 서정범, 『너털별곡』, 한나라, 1994, 70면.

29) <이젠 퇴근해>, 위의 책, 26면.

하게 전승된다.

다음은 전쟁 발발시 방위병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상식이다.

전쟁 발발시 도시락을 지참할 것이며, 알루미늄 도시락을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흔들어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킨다. / 전쟁 발발시 민방위를 소집한다. / 전투 중에도 저녁 6시가 되면 칼같이 퇴근한다. / 전쟁시 휴전선을 돌파,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동사무소를 점거한다. / 전투가 무르익을 무렵 일부러 적의 포로가 되어 적군의 군량미를 축낸다. / 전쟁이 한창일 때 적의 여군과 교섭하여 많은 아군을 배출한다. / 방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퇴근할 뿐이다. / 방위는 죽지 않는다. 다만 총소리에 기절할 뿐이다.³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위병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8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방위병은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쟁 중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역지를 부린다. 또한 알루미늄 도시락을 지참하여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시켜야 한다, 적 후방의 동사무소를 점거해야 한다, 적의 포로가 되어 군량미를 축내야 한다, 적의 여군과 교섭하여 아군을 배출해야 한다는 등 방위병의 임무와 근무방식을 희화화하고 있다. 그리고는 맥아더 장군의 말을 패러디하여, 방위는 퇴근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총소리에 기절할 뿐 죽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떠난다.

이는 방위병의 특성을 소재로 하되, 다만 평시를 전시 상황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의 가치를 능청스레 비틀어 줌으로써 웃음을 유발시킨다. 전시는 평시와는 다른 방식의 행동과 대응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전쟁 중의 퇴근, 도시락을 이용한 레이더망 교란, 적의 여군과의 교섭, 적 후방의 동사무소 점거 등은 일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쟁 상황과 방위병의 행동강령은 서로 부조화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화 현상은 주변인적 존재인 방위병의 처지를 희화화하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방위병에 대한 희화화는 그 이면에 방위병에 대한 비하적 태도와

30) <전쟁 발발시 방위병들의 임무> (서정범, 위의 책, 347면에는 3가지 사항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3대 특수 요원들이 있다. 첫 번째가 안기부 요원, 두 번째가 공수부대 특전요원, 세 번째가 공익요원이다. 그 중에서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요원이 바로 공익요원이다.

공익요원(Public Agent, Green Agent)은 지금까지 김일성이 두려워서 납치하지 못했던 방위를 개편해서 미국의 그린베레를 본떠서(그래서 북장도 Green이다) 더욱 더 강하게 만든 특수요원들이다. 이들은 계급도 군번도 이름표도 없는 특이한 녹색복장을 입고 다니며 군인도 아닌 것이 민간인도 아닌 것이 도 대체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특수집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극도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익요원은 크게 몇 가지 파트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차 단속 요원이다. 이들은 평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주차 단속을 하지만 전시만 되면 대형 주차딱지 한 다발을 들고 적의 전차(요즘은 항공기 또는 잠수함에도 붙인다고 함)에 주차 딱지를 붙임으로써 적 전차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둘째, 산악 요원이다. 산악요원들은 평시에는 깊은 산 속에서 짱 박혀(이것을 혹자들은 ‘비트’라고 함) 몇 날 며칠간 밥을 먹지 않고 라면과 소주만을 먹으며 고스톱을 쳐대는 무서운 특수요원들이다. 이들은 공무원 아저씨들이 어떻게 찾든 들키지 않고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동물과 같은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이것은 기밀사항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남들에게 얘기하지 말 것.) 이번에 죽은 무장공비 11명은 같은 편 공비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악요원들에게 당했다고 한다.

셋째, 우편배달 요원이다. 이들은 평시에는 우편배달 업무를 하다가 전시에는 적들이 어느 오지에 있든 적의 주소로 폭탄 소포를 가지고 가서 직접 전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내가 추측하기로는 우리나라 기술로는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을 만들지는 못하고 미사일을 살 돈도 없고 하니까 남아도는 건 인력뿐이라는 결론이 나서 이들 요원들을 양성한 것으로 추측됨.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 순항 미사일임.) 그 외에도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암암리에 활약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많으나 워낙 베일에 싸여 있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그거는 방위 얘기다. 동사무소 방위 숫자가 얼마지 몰라서 북한이 못 쳐들 어오는 거잖아. 전쟁이 일어날 당시 방위랑 특전사 하사관 옷이 똑같아서, 북 군들이 멈칫거리는 거지. 거기에 싸구려 공익이 왜 들어가냐?³¹⁾

방위병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소재로 한 유머이다. 내용만이 조금 달라졌을 뿐, 앞에서 다룬 전시 방위병의 행동요령과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단지 공익요원의 주요 임무인 주차단속, 산불감시, 우편배달을 전시상황에 맞추어 과장적으로 각색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논평은 다시 한 번 주목을 요한다. 화자는 우선 이 이야기가 방위병 유머를 변이시킨 것이라고 하면서, 싸구려 공익이 왜 끼어들었느냐고 힐책한다. 이는 화자가 공익요원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지만 공익요원에 대한 비하적인 태도는 사실은 방위병에 대한 비하적인 태도와 동일한 맥락을 이루는 인식이다.

방위병이나 공익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자원이다. 물론 그 사정이 부정적이지 않으며,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병과 공익요원은 현역병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³²⁾ 이러한 상대적인 과소평가는 방위병에 대한 희화화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방위병이나 공익요원에 대한 희화화는 하향적 비교를 통한 현역병의 상대적 우위를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동일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위병이나 공익요원이 희화화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 중의 하나로 방위병의 주변인적 위상을 생각할 수 있다.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방

31) <우리나라 3대 특수요원>, 포소닷컴(www.pokso.com), 게시자: 원조폭소, 2004. 5. 12.) ; 이성찬,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1)』, 들녘, 1998, 60~62면에도 또 다른 각편이 실려 있다.

32) 이성찬,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2)』, 들녘, 1998, 101면. 이에 의하면 현역은 방위병에 대하여 계급과 상관없이 반말을 사용하는 등, 아예 그들을 군인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MBC라디오의 <여성시대>에서 방송되었던 군경협담을 엮은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북로드, 2005)에도 단기사병의 이야기가 4편이나 실려 있다. 이들 이야기를 보면 단기사병에 대한 편견은 실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병은 현역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방위병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현역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방위병은 민간인은 더욱 아니다. 현역병과 민간인 사이의 어정쩡한 지점, 그 경계선 어디쯤에 방위병은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방위병은 그 어느 집단에도 소속될 수 없는 주변인(marginal ma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위상 때문에 방위병은 정해진 이름도 없고 정체성도 미약했으며, 현역병과의 하향적 비교의 대상으로서 희화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사회화 과정으로 본 병사 소재 유머와 양가성

지금까지 병사와 방위병을 소재로 한 기간병 유머의 전승양상과 그 속에 투영된 의미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 유머는 정체성 혼돈과 그 혼적을 보여주는 자이존중과 자기비하 의식을 볼 수 있었고, 일탈적 경험에 대한 각인화와 인상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급격한 상황변화에 실수를 거듭하는 고문관이라는 새로운 바보형 인간을 만들어 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방위병을 소재로 한 유머에서는 또 다른 주변인으로서의 방위병을 파악하고 이들을 희화화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를 보면 병사를 소재로 한 군대유머는 정상과 비정상, 규범과 일탈,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서로 상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대 이후 새로운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재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구성원들은 새로운 조직에 적합한 사회정체성을 확립한다. 타즈펠(Tajfel)은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 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한 바 있다.³³⁾ 자신이 의지에 따라 선택한 조직, 능동적으로 입문한 집단에 대한 재사회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군대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의 이행을 위해 소

33) 장미향·성한기, 앞의 글, 79면에서 재인용.

속된 집단에 대한 재사회화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한 인식체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신병훈련과 같이 짧은 시간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현격한 변화를 가져오기란 쉽지 않다. 이런 적응과정에서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깨질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인식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 규범적 요소는 전환이 쉬운 편이지만 인식적 정서적 요소는 전환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른바 물질과 정신, 혹은 표면과 이면 사이의 지체현상이 나타난다.

군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충돌과 갈등 그리고 지체현상은 군복무가 갖는 양가성³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군대유머의 주요 전승집단인, 예비역을 포함한 병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복무는 궁극적 목표이면서 또한 하나의 통과의례적 과정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군생활에 잘 적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로의 복귀를 걱정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존재로서의 병사는 직업군인과 민간인의 성격을 공유한 주변인적 존재이다. 그는 군과 사회의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회로 되돌아올 사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병사들은 군에 적응해 가는 만큼, 동시에 사회와의 격차를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자아존중과 자기비하가 공존하는 곳이며, 정상행위와 일탈행위, 원심성과 구심성, 호감과 반감이 애매모호하게 중첩된 곳이다. 따라서 병사와 방위병을 소재로 한 일군의 유머는 결국 군대사회화 과정의 양가성에 대한 기억 내지 기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군생활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중층적 시선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가성을 갖고 있는 기간병 유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리짓기’라고 생각된다. 무리짓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외부적 무리짓기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 무리짓기이다. 먼저, 외부적 무리짓기는 사회와 군대를 대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일반사회와 군대 사이의 상이한 규칙, 태도, 생활을 경험하면서 양자 사이

34) 원래 양가성이라는 용어는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호미 바바는 양가성을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타자성에 대해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을 나타내는 ‘지배 욕망의 양가성’을 갖는다고 하였다.(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고부웅 외, 『탈식민주의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239면.)

의 거리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때 입대전과 입대후의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이 함께 표출된다. 거리감의 정도가 클수록 이야기의 소재로 애용된다. 잡초 제거를 소재로 한 유머처럼 사회와 군대 사이의 인식거리는 충격적으로 크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있는 것은, 유머를 통해 군인이라는 새로운 인간을 인식하고 양자간의 거리를 극복하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⁵⁾

다음, 내부적 무리짓기는 훨씬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병사와 장교, 병사와 부사관 등으로 신분에 따른 구분도 있고, 현역과 방위병처럼 복무형태에 따른 구분도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탁월한 수준의 병사, 보통 수준의 병사, 보통 수준 이하의 병사처럼 賢愚의 정도를 따져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에서 보통 수준의 병사는 이야기 소재로서의 매력은 크지 않다. 오히려 보통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가 이야기 소재로서 매력적이다. 예컨대, 노팬티 사건을 일으킨 이등병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고, 고문관 이야기나 방위병 이야기는 보통 이하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하려는 무리짓기는 왜 이루어지는가? 무리짓기는 자기위상의 확인이자, 자존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다른 존재를 대비하여 자신의 위치 혹은 위상을 끊임없이 점검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간병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위상의 확인은 곧 타인에 대한, 혹은 우리와 다른 계층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평가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자기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무리짓기는 평가하기로 이어진다. 평가하기 역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공존한다. 자기평가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타의적이고 강제적인 입대이지만, 군인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타인평가는 그들과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는 방위병과 고문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러

35) 데이비드 베레비, 정준형 역, 『우리과 그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 예코리브루, 2007, 373~374면.

낸다.

이런 평가하기의 가치는 바로 군에 대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군생활 적응을 위한 병사들의 내적 갈등, 자기위상과 존재가치의 확인은 궁극적으로 군대사회화 과정의 양가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생활에 대한 수용과 회피라는 애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군대유머는 웃음의 유발을 통해 병사들의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으며, 군에 대한 건전한 논평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논평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웃음을 통한 양가적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군대유머는 일종의 언어적 축제가 아닌가 한다. 축제는 일상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규정에서의 일탈을 허용한다. 군대유머 역시 허구적 혹은 사실적 서사를 통해서, 그리고 과장된 서술과 희학적인 서술을 통해 수직적, 집단적, 위계적 질서에서 일탈을 허용한다. 이런 일탈적 웃음과 희학을 담고 있는 군대유머는 의미있는 현대 구비전승의 하나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하사닷컴(www.kimhasa.com)
문화일보(2004. 10. 23, 2006. 9. 7.)
사오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바로 사오정이다』, 자작B&B, 1998.
서경석, 『병영일기』, 시공사, 2003.
서정범, 『너덜별곡』, 한나라, 1994.
이성찬,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 1·2』, 들녘, 1998.
장 용,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북로드, 2005.
조선일보(2007. 7. 13.)
폭소닷컴(www.pokso.com)
- 김선웅, 『개념중심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6.
데이비드 베레비, 정준형 역, 『우리와 그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 에코리브루, 2007.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고부웅 외, 『탈식민주의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여성과 사회』 1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0, 92~114면.
백종천, 『국가방위론』, 박영사, 1985.
백종천·온만금·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1994.
안상수, 「군가산점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페미니즘연구』 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321~349면.
앤드류 애드거·피터 세즈워, 박명진 외역, 『문화이론사전』, 한나래, 2003.
윤진·김도환, 「군복무 경험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95연차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심리학회, 185~197면.
정재민, 「군대유머의 사회문화적 위치」, 김규철 외, 『어문학연구의 넓이와 깊이』, 역락, 2006, 705~730면.
정재민, 「신병유머의 면모와 의식세계」, 『웃음문화』 창간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6, 117~146면.
박경숙, 「생애 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4, 101~134면.
장미향·성한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07, 77~87면.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개정판, 학지사, 2002.

A study on the ambivalence of military humor regarding as socialization process

Jung, Jae Min

The military humor expresses the Korean's cognition about the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as a contemporary oral literature. Especially the humor of private and bangwie-byeong(short service soldier) represents the confusion of social-identity as well as the desire of usual recovery by carving or impressing. Moreover, these humor show the newly foolish man(gomungwan) and the teasing bangwie-byeong as an another marginal man.

After all these military humor have contrary cognition, normality and abnormality, standard and deviation, rationality and irrationality etc. This phenomena grows on process of adaption to military culture. The valance between body and mind is upset after conscription into army. The conflicts spring up in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and occur cultuer delay. It can be explained the concert of ambivalence and private's double gaze.

The ambivalence of military service is connected the grouping us and them, and joined together the estimating them. Finally the enjoyment group of military humor represents the ambivalence of re-socialization. These military story show the message on love or hatred about army, and these humor have significance as contemporary oral literature and scene of jest or deviation.

keyword : military humor, socialization, social-identity, carving,
gomungwan(foolish private), bangwie-byeong(short service soldier),
marginal man, ambivalence